



# 임실농악 '즐기자!'

▶ 필봉농악 상설공연  
'필봉 Good! 보러가세'

예술적 가치 중심으로  
전통·현대공연예술  
융복합 프로그램으로 이뤄  
'판굿'·'두레놀이' 등 선풍  
오늘부터 올해 첫 무대

세계 속의 임실을 알리는 임실군의 대표 문화예술 작품인 임실필봉농악이 올해 첫 무대를 갖는다. 5일 임실군에 따르면 400년 역사의 농악으로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임실필봉농악의 상설공연 '필봉 Good! 보러가세'가 6일부터 임실필봉문화촌 대공연 및 야외 공연장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임실군이 후원하고 국가무형문화제(제11-5호) 임실필봉농악보존회가 주최하는 임실 '필봉 Good! 보러가세'는 2010년부터 8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번 상설공연은 필봉 농악의 예술적 가치를 중심으로 전통공연예술과 현대공연예술의 획기적인 융·복합 공연프로그램으로 개발했다. 차별화된 농악 공연으로 무형유산의 품격높은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신명과 감동, 재미를 한껏 누릴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번 공연은 지역 문화용성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농촌 문화산업 중심의 6차 산업화로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임실농악 '판굿' 공연과 퓨전 타악극 '임실 두레놀이 공연', 감성체험 '떡메치고 장구치고' 등이다. '필봉 Good! 보러가세'는 개막공연작 '내 손안에 도깨비'를 시작으로 8월말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총 30회에 걸쳐 무대에 오른다. 단 무더위가 절정인 7월과 8월에는 목요일 저녁 8시에 열린다. 5월 어린이 날과 어머니 날을 맞아 임실지역

의 농경문화를 접목시킨 특별 상설공연도 진행한다. 심민 임실군은 "다채롭고 풍성한 필봉굿을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고, 우리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임실 필봉농악의 역사성을 담아 임실농악의 세계화를 위해 전통문화계승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도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심의해 '필봉 Good! 보러가세'를 포함한 14개 시군을 선정했으며, 임실필봉농악은 국비 4,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공연과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임실필봉농악 홈페이지([www.pilbong.co.kr/](http://www.pilbong.co.kr/)) 또는 (063-643-1902)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종영 기자

## 흔불학생문학상, 전국 고교생 대상 산문 모집

스토리텔링 공모전인 흔불학생문학상이 '전북의 강'을 주제로 공모를 실시한다. 전주문화방송(사장 원만식)과 최명희문학관(관장 장성수)이 주최·주관하고 전라북도교육청이 후원하는 흔불학생문학상은 소설 '흔불'을 통해 모국어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작가 최명희(1947-1998)의 삶과 문화열정을 기리기 위해 2011년 제정됐다. 응모 주제는 전북의 강, 전북에서 시작되는 섬진강·금강·만경강·동진강을 비롯해 각 지천들까지 강에 얽힌 이야기로 작품은 수필·소설·희곡·취재기·체험기 등 산문 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자신만의 시각으로 창작하거나 어느 이야기의 특정 부분을 떼어내 다시 구성하면 된다. 분량은 A4용지 2장~7장(200자원고지 15매~50매)이며, 9월 3일까지 이메일 [jeonjuhonbul@nate.com](mailto:jeonjuhonbul@nate.com)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과 차상 수상자에게 각각 100만원과 70만원의 장학금과 전라북도교육청상이 수여되는 등 36명의 학생에게 총 740만 원의 장학금이 주어진다. /정해은 기자

## ▶▶ 공연 & 전시 ◀◀



## 15일 국립전주박물관 '우리 소리 진수성찬'

국립전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시각장애인 궁중악사와 함께하는 '우리 소리 진수성찬'을 오는 15일 오후 6시 전주박물관 강당에서 펼친다.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이하여 마련된 이번 공연은 장애를 극복하고 재능과 열정으로 희망을 들려주는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연주로 만날 수 있다.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은 시각장애인 악사들로 구성된 한국 전통음악 공연단으로, 조선시대에 시각장애인 악사들에게 관직을 주고 궁중잔치나 내원에서 연주를 하던 관현맹인 제도를 재현하고자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이 창단했다. 뉴욕 카네기 홀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등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 예술단은 이번 공연에서 궁중 연례악과 판소리, 대금독주 거문고 독주, 단소산조, 성창구 놀이 등을 선보인다. 공연은 무료이며, 7~14일 전주박물관 누리집([jeonju.museum.go.kr](http://jeonju.museum.go.kr))에서 선착순 예약을 통해 관람 할 수 있다. 한편 오는 8일에는 가족영화 '또 다른 세계로의 모험'이 오후 6시 문화사랑방에서 상영된다. 또 식목주간을 맞이하여 '토마토 모종 심기'가 오후 3시와 4시 옥외 프라에서 두 차례 진행된다. 각 50명씩 가족 단위로 당일 선착순 모집한다. /정해은 기자

## 천송이 LED장미 정원 조성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최근 야경이 아름다운 전당 만들기를 위해 천송이 LED장미를 식재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장미 정원'으로 명명된 이 공간은 열린 한문화 융합 공간 홍보마케팅사업의 일환으로 오대수 원장이 직접 제한한 사정이다. 연과랑과 진핑크빛이 감도는 LED장미 천송이는 사운드 스키프 등 기존 전당의 야간 조명에 빛을 더하며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전당은 앞으로 장미수를 늘릴 뿐 아니라 소망쪽지를 방문객이 직접 만들어 수(手) 제작의 의미도 더하고 소망도 기원해 볼 수 있는 공간인 가칭 '핸드메이드 소망의 정원'과 전주 전통한지로 만든 한지 바람개비를 식재한 '바람의 정원'도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해은 기자

##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선정

### 고창군, '오페렐라·발레리아' 등 공연 선보이기로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에서 8개의 사업이 선정되면서 군민들에게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 예술장르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5일 군에 따르면 그간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다양하고 재미있는 레퍼토리를 구성하는 등 사업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오페렐라·발레리아'는 오페라와 발레 음악을 연주와 해설로 만나볼 수

있는 무대이며, 서양의 오케스트라와 우리 전통음악을 융합시킨 이리앙심포니오케스트라의 환상의 음악여행 '비발디의 사계'도 즐거운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필리체앙상블 '樂! 樂! 樂! 콘서트', 뛰어난 연기와 화려한 노래와 안무로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는 뮤지컬 '천변카바레', 대학로 연극 예매 1위에 빛나는 유쾌발랄한 사랑이야기를 다룬 연극 '욕망방 고양이'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행복한 우리동네 문예인프로젝트', 한국문화재단의 공연지원 공모사업 '굿(Good) 보러가자', 전북문화관광재단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등도 선보이게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미니취업박람회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신수미)는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7일 오후 1시30분 센터에서 올해 첫 '미니취업박람회'를 연다고 밝혔다. 미니취업박람회에는 도내 유망기업 및 여성친화기업인 (주)뉴파워프라즈마, (주)탑스, (주)올리스, 반석기업(주), (주)알에프에스, (주)한울푸드서비스 등 17개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여성가족부·전라북도지원 직업교육훈련 전기·전자부품품질검사원, 탄소산업분야제조인력, 단체급식조리사 양성과정 수료생 및 도내 구직희망여성 대상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전문 취업설계사와 1:1 구직상담 및 이력서 작성을 지원한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아름다운 선거 특별헌대행인국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